

돌풍 끝나지 않았다… 페퍼스, GS칼텍스 상대 재도약 시동



오늘 서울서 중위권 판도 가를 한판 승부
조이·시마무라 등 앞세워 승점 사냥 나서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GS칼텍스와의 원정길에 오른다.
페퍼스는 5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서울 KIXX와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1승이 간절한 페퍼스의 중요한 승부다.
페퍼스는 최근 정관장(1-3), 한국도로공사(0-3), IBK기업은행(2-3)에 연달아 패하며 시즌 첫 3연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0일 기업은행전에서는 홈 무패 기록도 깨졌다.
이번 GS칼텍스전 결과에 따라 2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
현재 현대건설(6승 6패·승점 20)이 2위, 흥국생명(승점 18)이 3위, 페퍼스가 6승 5패(승점 17)로 4위, GS칼텍스(5승 6패·승점 16)가 5위에 자리하면서 '승점 1점 차'의 촘촘한 중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페퍼스가 GS칼텍스를 상대로 3-0 또는 3-1 승리를 거둘 경우 승점 20점 고지에 오르며 현대건설을 제치고 2위 탈환까지 노릴 수 있다.
앞선 만남에서는 페퍼스가 웃었다.
페퍼스는 지난 11월 6일 홈에서 열린 1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창단 최다 타이인 3연승을 달성했다.
당시 조이가 30득점(공격 성공률 48.21%)을 올리며 지젤 실바(32득점)와 화력 대결에 맞섰고,

시마무라는 블로킹 7개를 포함해 18득점을 기록하며 중앙을 장악했다. 박정아도 13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이 경기 이후 페퍼스는 리시브와 블로킹 라인에 살아남아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GS칼텍스는 경험과 조직력이 강점인 팀이다. 베테랑 세터 안혜진과 외국인 공격수 실바를 중심으로 높은 타점의 공격을 전개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최근 기록이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8일 장충에서 정관장을 상대로 첫아웃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끊었지만, 지난 2일 현대건설 원정에서는 첫아웃 패배를 당했다.
현대건설전에서도 실바를 축으로 한 높은 타점 공격은 위력적이었다.
실바는 이 경기에서 23점을 폭발했다. 팀 내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그만큼 공격이 실바에게 과도하게 쏠렸고 리시브·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약점도 드러났다.
또 레이나와 유서연 등 wing 공격수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날에는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페퍼스가 강한 서브와 블로킹으로 실바를 집중 공략한다면,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경기의 첫 번째 승부처는 양 팀 외국인 공격수의 화력 대결이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조이는 30득점, 실바는 32득점을 올리며 풀세트 접전을 이끌었다.

최근 페퍼스의 3연패 속에서도 조이가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에이스 대결'이 흥미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경기 초반 마무리·박정아·박은서를 고르게 활용해 상대 블로킹 폭을 넓혀 놓고, 이후 승부처에서 조이의 백어택과 후위 공격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패턴도 이상적이다.
공격이 조이에게만 집중되면 후반 체력 저하와 범실이 늘어나는 만큼, 초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준 뒤 조이의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 능력도 관심사다.
시마무라의 속공과 블로킹이 살아남아 GS칼텍스 세터의 중앙 분배를 위축시키고, 자연스럽게 실바 쪽으로 공격이 더 쏠리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리시브가 버텨줘야 한다.
페퍼스는 3연패 기간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가 제대로 패턴 배구를 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도로공사전에서는 모마의 강서브 한 방에 리시브 라인이 무너져 일방적인 흐름이 됐고, 기업은행전 5세트에서도 빅토리아와 캔켈라의 서브 공략에 2-9까지 밀리며 승부가 일찍 기울었다.
결국 페퍼스 입장에선 초반 서브 라인에서 범실을 줄이고, 강한 서브와 블로킹으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먼저 흔드는 것이 중요하다.
페퍼스가 시즌 초반 보여준 상승세와 팀 분위기를 되살려 공격·수비 밸런스를 다시 찾는다면, 3연패 탈출과 함께 원정 약세도 지울 수 있다.
페퍼스가 잠잠해진 돌풍을 살려 반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을지 배구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페퍼스가 5일 GS칼텍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연패 탈출을 노린다. 지난 11월 6일 홈에서 진행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페퍼스가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KOVO 제공>

딸 조이 응원하며 '승리 요정' 변신... 팀 7번째 선수로 함께 된다

'페퍼스 에이스' 조이 어머니 캐런
미국서 배구 컨설턴트로 활동
"딸 '트리플 크라운' 경기 기쁨
PO 진출하면 다시 응원 오겠다"

페퍼스의 공격을 이끄는 미국 출신 '에이스' 아포짓 스파이커 조이 웨더링턴의 어머니 캐런 크로스 웨더링턴(60)이 한국까지 날아와 열정적인 응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0월 한국에 입국한 뒤 조이의 V리그 데뷔전을 시작으로, 출전한 경기를 대부분 직접 찾아가 관전했다. 캐런은 특유의 과감한 제스처와 표정으로 '리액션 장인'이자, 팬들 사이에서 '승리 요정'으로 통했다.
캐런은 "승리요정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잘 몰랐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큰 칭찬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홈 경기 때 체육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나도 신이 나 응원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팀도 그런 에너지에 힘입어서 홈 경기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 팀 팬들뿐 아니라 상대 팀 팬들까지 조이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배구를 좋아하고, 진심인지 느꼈다"고 조이의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됐던 11월 21일 정관장전을 떠올렸다.
어머니 캐런 역시 배구 선수 출신이다.
현재는 미국 비영리 단체 '위 코치(We Coach)'에서 배구 컨설턴트로 학교 여성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유망 지도자들을 발굴·선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이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배구 선



지난 11월 2일 페퍼스가 조이가 V리그 데뷔전이었던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16득점을 올린 뒤 어머니 캐런(오른쪽)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OVO 제공>

수의 길을 걷게 됐다.
캐런은 "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늘 체육관에 있었다"며 "제가 일하던 뉴멕시코 학교부터 늘 같이 체육관을 드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트 안에서 있을 때와 관중석에서 딸을 응원하는 지금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그는 "가장 큰 차이는 팬들과 함께 동화돼서 그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역시 열기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마'의 마음으로 조이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캐런은 "어렸을 때부터 해주던 말은 항상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즐기라는 것이었다"며 "한국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만나는 팀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도로공사전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캐런은 다시 또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그는 "페퍼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그 시점에 맞춰 남편과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며 "꼭 그 단계까지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국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캐런은 " '승리 요정'의 기운을 여기 두고 간다"며 "체육관 안팎에서 조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페퍼스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2025년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1위를 기록한 고프(오른쪽)와 2위 사발렌카. /연합뉴스

테니스 고프,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1위

올해 455억...WTA 단식 세계 1위 사발렌카 2위

코코 고프(미국)가 3년 연속 여자 스포츠 선수 연간 수입 1위에 올랐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인 스포티코가 4월 발표한 올해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고프가 3100만달러(약 454억7000만원)를 벌여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고프는 2023년부터 이 순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여자프로테니스(WTA) 단식 세계 랭킹 3위 고프는 지난해에도 연간 수입 3040만달러로 1위에 올랐다. 2023년에는 2270만달러를 벌었다.
올해 고프는 하루에 1억2000만원씩 번 셈이었다. 해마다 그렇듯이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상위권은 2025년에도 테니스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다.

WTA 단식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3000만달러로 2위, 세계 랭킹 2위 이가 시비온테크(폴란드)가 2310만달러로 3위다.
테니스 종목이 아닌 선수로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키 종목 2관왕 구아이링(중국)이 2300만달러로 4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순위다.
같은 중국의 테니스 선수 정천원이 2060만달러로 5위에 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의 '톱스타' 케이틀린 클라크(미국)가 1610만달러로 6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간판 벨리 코다(미국)가 1380만달러로 7위를 기록했다.
8~10위는 다시 테니스 선수들이 포진했다.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테니스 선수들로 채워졌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장인 공모전시
호점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